

리큐하치만구 신사

9 세기에 리큐하치만구 신사의 최고위 신관이 들깨 씨앗에서 기름을 짜는 착유기를 발명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들기름 제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들기름은 조정이나 신사 불각의 등불을 켜는 데 쓰였지만, 서서히 일반인들 사이에도 퍼져나갔습니다. 리큐하치만구 신사는 들기름 제조와 판매로 오랫동안 번영했으며, 조정으로부터 독점적인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들기름을 판매하는 모든 상인은 리큐하치만구 신사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 했습니다.

내력

리큐하치만구 신사는 그 역사와 신성한 우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859 년에 천황의 명을 받은 승려 교교가 하치만 신의 분령(分靈)을 규슈에서 교토로 옮겨와 이 신사를 창건했습니다. 교교는 현재 하치만구 신사가 있는 장소에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고 하치만 신을 모실 땅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치만 신을 모시는 본전 왼쪽에는 ‘이와시미즈’라고 하는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매우 흥미롭게도 교토부의 오토코야마 산에 있는 이와시미즈 하치만구 신사에도 유사한 내력이 있습니다.

경내

도리이 오른쪽에는 들기름 용기를 봉납하는 최고위 신관의 상과 신사 창건 1100 주년을 기념해 만든, 전국의 유지업자가 사용하는 검은색과 노란색의 표지, 그리고 착유기 그림이 그려진 간판이 있습니다. 리큐하치만구 신사에서는 병에 든 들기름, 최고위 신관의 상과 기름장수를 그린 에마, 그리고 한자로 ‘油斷大敵(유단타이테키)’라고 쓰인 부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마음이 느슨해져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유단’(기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단타이테키’는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이 최대의 적’이라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부적을 기름과 관계가 있는 신사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말놀이입니다. 그 외에 신사에 봉납된 착유기를 절반 크기로 축소한 모형이 축제 때 공개됩니다.